

CSF 이슈분석



2017-11

「경제」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간 무역전쟁의 가능성

중국

김부용 조교수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 주요내용

- (현황) 트럼프 신정부의 출범으로 향후 글로벌 무역전쟁 리스크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제로섬 게임이 양국과 전 세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임.
- (원인과 분석) 미국은 중국의 환율 조작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미국의 무역적자와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은 서비스 무역과 글로벌 공급체인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사실상 훨씬 적다고 보고 있음.
- (전망과 시사점) 미중 간 무역구조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회복, 글로벌 경제에의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으며, 대중 및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전략의 다변화가 필요함.

1. 이슈 현황

■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 관련 리스크는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임.

-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주로 중국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중국이 철강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45%의 징벌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또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면서 중국이 환율 개입으로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거두고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역설함.
- 그는 취임식에서도 향후 무역, 세수, 이민, 외교 등에서 미국에 유리한 정책을 펼칠 것임을 선언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함.
 -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우리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것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모든 무역과 세수, 이민, 외교 등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은 미국인 근로자와 미국인 가정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¹⁾
-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중국의 반응은 “제로섬 게임은 양국과 전 세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는 것은 보복을 불러일으킬 뿐이므로 양국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임.
 - 트럼프 취임식 전날 밤, 중국 신화망 영문판에 「트럼프 출범 그 이후, 중미 간 협력이야말로 글로벌 이익에 부합(Commentary: As Trump takes office, cooperation best option for U.S.-China ties, global interests)」이라는 문장을 게재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힘.
 - “Trump's team also needs time, like all of its predecessors, to figure out the complexity of China-U.S. relations. Zero-sum attempts between the world's largest two economies, if unchecked, will harm them and any global prospects for peace and prosperity...Labe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as protectionism only stirs up retaliation.”²⁾

1) The White House(<https://www.whitehouse.gov/inaugural-address>; 검색일: 2017. 1. 21).

2) 新华网 News(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7-01/21/c_136001917.htm; 검색일: 2017. 1. 22).

- 이에 향후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과연 일어날 것인지, 일어난다면 양국과 글로벌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한국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등은 주요한 이슈가 됨.

2. 원인과 분석

■ 이처럼 미국이 중국에 강경책을 쓰려는 것은 미국이 대중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임.

- 2000년대 들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의 838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3,672억 달러로 급증하였음(그림 1 참조).
 - 2015년 미국의 대중 수출은 1,161억 달러, 수입은 4,83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672억 달러에 달했으며(그림 1 참조), 이는 당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7,371억 달러)³⁾의 약 50%를 차지함.
- 또한 미국은 그동안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것도 중국과의 무역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음.
 - 2000~10년 중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560만 개 감소했는데, 미국은 이중 1/4 이상이 중국과의 무역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⁴⁾.

■ 그동안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환율 조작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해 오기는 했으나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였지만, 트럼프 지도부는 대중 강경파들이 통상 분야에 임명되면서 향후 미중 간 무역마찰 확대 가능성이 커짐.

-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경우 대표적인 중국 비판론자로 알려져 있음.
 - 피터 나바로는 중국경제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로 “중국의 환경오염, 짝퉁과 지적재산권, 환율 조작, 인권과 소수민족 등의 문제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지구의 종말은 시작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임⁵⁾.

3) 한국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http://stat.kita.net/stat/istat/OtherMain.screen?ctrGb=U>; 검색일: 2017. 1. 22).

4) 「신년기획-G2 무역전쟁, 한국은 어디로② 환율 조작국·비관세 장벽...韓경제 곳곳 암초」, 뉴시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70103_0014617218&cID=10401&pID=10400; 검색일: 2017. 1. 22).

5) 피터 나바로·그렉 오토리(2012),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지식갤러리출판사, 2012년 3월.

그림 1. 미국의 대중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 United States Census 대외무역통계자료(<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700.html#2015>; 검색일: 2017. 1. 2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트럼프 내각의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월버 로스 또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 보조금 지급 등을 비판하면서 중국에 고율 관세 부과, NAFTA 재협상, TPP 탈퇴 등을 주장한 보호무역주의자임.

- 지난 18일의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도 그는 중국을 겨냥해 가장 보호무역적인 국가라면서 향후 미국의 수출을 늘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덤핑을 막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⁶⁾.

■ 한편, 미중 간 무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의 약 50%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다는 데이터는 서비스 무역과 글로벌 공급체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임.

□ 우선 미중 간 무역에서 중국은 상품 무역에 있어서는 흑자를 보지만 서비스 무역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임.

- 실제로 미국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미중 간 서비스 무역은 613억 달러에 달했으며, 미국의 대중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9억 달러와 48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 「로스 美 상무 내정자 “중국이 가장 보호무역적”...“NAFTA도 즉각 재협상”」, 아경e(<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11904590043848>; 검색일: 2017. 1. 22).

295억 달러의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⁷⁾

- 다음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가공무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으로 볼 때 약 37%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부품·부분품과 관련된다는 것임⁸⁾.

■ 또한 미국의 일자리 감소는 미국 정부의 정책 착오로 인한 것이지 중국이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음.

- 즉 IBM, Microsoft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화로 많은 이윤을 창출하였으나, 미국은 인프라 건설보다는 군사·무기 등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등 자원과 자본에 대한 배분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임⁹⁾.

■ 따라서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양국 관계를 협력으로 끌고 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보다 미국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음.

3. 전망과 시사점

■ 트럼프 신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임.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 등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전쟁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각각의 경우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중단된 무역전쟁이 미국경제에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 세 가지 시나리오에는 각각 완전 무역전쟁(full trade war), 비대칭적 무역전쟁(baseline), 중단된 무역전쟁(aborted trade war)으로 완전 무역전쟁의 경우 2019년 미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실업률은 8%를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함(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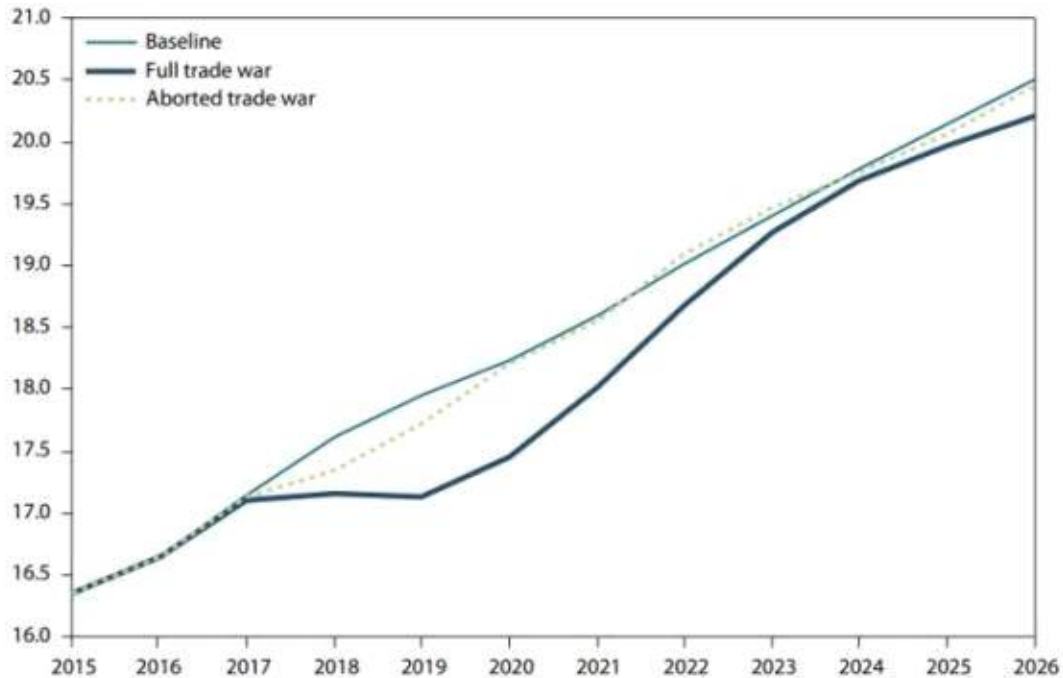
7)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https://ustr.gov/countries-regions/china-mongolia-taiwan/peoples-republic-china>; 검색일: 2017. 1. 22).

8) 「关于中美贸易战 索罗斯给出一个震惊四座的论断」, 网易财经(<http://money.163.com/17/0123/09/CBF3TMUO002580S6.html>; 검색일: 2017. 1. 22).

9) 「港媒：马云称为避免中美贸易战 宁愿牺牲阿里巴巴」, 搜狐新闻(<http://news.sohu.com/20170119/n479123427.shtml>; 검색일: 2017. 1. 22).

그림 2.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미국 GDP 추이

(단위: 조 달러, 2009년 기준)



자료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2016), "Assessing Trade Agendas in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PII Briefing 16-6, September 2016.

주: 완전 무역전쟁(full trade war)은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 고율 관세(중국: 45%, 멕시코: 35%)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중국과 멕시코는 이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경우이고, 비대칭적 무역전쟁(baseline)은 중국과 멕시코가 전면적인 보복은 하지 않되 선택적으로 일부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며, 중단된 무역전쟁(aborted trade war)은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 1년간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단기 무역전쟁의 경우임.

-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국 또한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하락이 불가피할 것임.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타격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언론들은 미국이 중국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적게는 1%, 많게는 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환율 절상 압력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임.**

□ 2015년 중국이 환율제도 개혁을 단행한 이후 위안화는 완만한 평가절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절하추세가 계속될 경우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타격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 주도로의 성장 전략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소비 주도의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음.
- 또한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년)에는 과잉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이러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출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종합적으로 미국이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손실도 크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원인으로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적어 보임.

- 중국은 미국의 주요 항공기 수출시장, 원자재 및 농산물 수출시장이며 이들 제품은 모두 정책적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로 중국이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경제에도 적잖은 충격이 예상됨.
- 따라서 완전 무역전쟁보다는 단기적인 무역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올해 1월 중순 마윈(马云) 알리바바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에서 미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향후 미중 간 협력과 양보의 여지도 있어 보임.

- 홍콩 언론에 따르면 마윈 회장은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국기업들의 중국 시장 내 판매를 돕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미국에 1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줄 것으로 전망됨.¹⁰⁾

- 한편 한국은 대중 및 대미 의존도가 모두 높은 국가로서 향후 수출시장의 다변화, 수출 제품의 다변화, 산업구조 고도화화, 내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전략적 전환이 절실한 시기임.

□ 2016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3%이며, 대중 수출의존도는 이것의 2배인 26%임.

□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를 보면 무역방식별로는 가공무역이 50% 가량을 차지하며, 가공단계 별로는 중간재가 약 80%를 차지하고 소비재 수출 비중은 3% 미만임.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5%p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¹¹⁾ 중국의 경기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CSF

💡 CSF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港媒：马云称为避免中美贸易战 宁愿牺牲阿里巴巴」,

搜狐新闻(<http://news.sohu.com/20170119/n479123427.shtml>; 검색일: 2017. 1. 22).

11) 현대경제연구원(2016), 「중국의 성장 둔화가 주요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평 16-14(통권 687호), 2016년 4월 8일.